

# '세계적인 선수 육성의 터 되길'

## 대경중학교 · 신봉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식



등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포천지역 육상 꿈나무 발굴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출발점에서 있다"며 "마라톤의 황영주, 이봉주 선수와 같은 훌륭한 육상 선수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경중학교(교장 김삼수)와 신봉초등학교(교장 조규식)는 12월20일 오후3시 대경중학교 도서실에서 육상부 창단식을 갖고 세계적인 선수 육성의 요람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창단식은 황영철 포천시장 권한대행,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 조돈창 경기도교육위원, 이강림 포천시의회위원장 등 내빈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삼수 대경중학교 교장은 창단식사를 통해 "우리의 육상 꿈나무를 키우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은 격려사를 통해 "육상의 모든 운동의 기본으로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조돈창 경기도교육위원은 " 그동안 포천의 육상부는 송우초등학교와 갈월중학교에 설치운영되어 경기체육고를 나와 국가상비군에 발탁되는 등 육상꿈나무의 요람이었는데 어느날부터인가 육상부가 시들해졌는데 교육이 이라는 안된다"며 "오늘 대경중학교와 신봉초등학교 육상부 창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봉초등학교 선수 7명, 대경중학교 선수 14명 등 모두 21명으로 창단식을 가졌으며 신봉초등학교는 류두선 감독, 최지혜 코치가 대경중학교는 오영기 감독, 박영민 코치가 육상을 맡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초등학교 재능·작품발표회

## 그동안 같고 닦았던 재능 유감 없이 발휘



포천초등학교(교장 임종수)는 12월17일과 18일에 포천초등학교의 체육관에서 재능 발표회와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17일에는 1,3,5학년이 꼭두각시, 리코더, 음악 줄넘기 등을 보여 주었으며 18일에는 2, 4, 6학년 어린이들이 레이크 댄스, 패션 쇼, 수화 등을 공연했다.

어린이들은 그동안 기말고사 시험을 치루면서도 틈틈이 같고 닦았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참석

하신 학부모님과 내빈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발표회를 마친 후, 4학년 신현영 선생님은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연습하여 발표한 것처럼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 간다면 이 세상에 못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하 시며 우리학교 어린이들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이지연 학생부예기자(포천초 4년) skfkgks3@hanmail.net

###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수아셈 5. <대화> (2)  
\* 여기서 먼가요?  
이것봐 후렴하여?  
<Is it far from here?>  
\* 그럼요, 10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요  
슈어, 텐마일서웨이  
<Sure, ten miles away.>  
\* 차로 15 분이면 가겠네요.  
우아캔메이잇 위딘퀵티엔미닛스  
<We can make it within 15 minutes.>  
\* 당시 썰쟁는 것 같아, 몸무게가 얼마야?  
유투육계릿헛 스유어웨이?  
<You look getting fat, what is your weight?>  
\* 조금, 100 파운드 조금넘어(한국 50kg) 넘었춰, 어리틀오버 핸드파운스  
<Not much, a little over hundred pounds.>  
\* 저 사람 키 정말 크다 그치?  
히스윌얼리톨맨, 이즈니?  
<He's really tallman, isn't it?>  
\* 그래, 6 척이 넘는 것 같아  
야, 아이게스 오버씩스쉬잇  
<Yeah, I guess over six feet.>

문의 : 윤 중 성 (017-728-4977)cdlyoon@nate.com

### 함께 공부해요

## 심술지요(心術之要) ④

曾子曰君子所貴乎道者三 이니  
動容貌 에 斯遠暴慢矣 며 正顏色 에 斯近信矣 며  
出辭氣 에 斯遠鄙倍矣 니라.

동용모(動容貌) 모습을 움직여서 자신의 표정을 나타냄. 비례(鄙)는 배(背)와 같아서 도리에 어긋남. 중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소중히 여겨야 할 도리가 세 가지 있다. 용모를 움직일 때에는 포악하고 거만한 태도는 멀리 해야하며, 얼굴빛을 바르게 할 때에는 信實(신실)에 가깝게 해야 하며 사기(辭氣)는 鄙陋(비루) 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의 세 가지 도리를 논했다.

용모는 화평하게 해서 남이나와 친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악하거나 거만한 모습은 금물이다. 얼굴빛은 성실하여 마음이 있게 해야 한다. 말은 교양이 있어야 하고 말씨는 겸손해야 한다. 말이 전박하면 비루하고, 너무 고원하면 사리에 어긋난다.

양주승  
본지 사문위원의 교

### 독후감

## 재인폭포 주위에 있는 개미들에게

### -병정개미 1114호를 읽고-

이 지연  
학생부예기자(포천초 4년)

지난 3개월 동안 책상 위에서 나를 괴롭히던 책, 드디어 다 읽었다. 사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사 놓고는 "다 읽었니? 다 읽었어?" 자꾸만 물으시는 엄마 때문에 괴로웠다. 더구나 나는 곤충 종류를 좋아하지 않는다. 불개미, 곰개미, 왕개미, 사냥꾼개미라든가 병정개미 1호, 3호, 1114호 32332호, 846호처럼 번호가 붙은 이름도 낯설었다. 그래서 엄마께서 읽어라, 할 때만 읽는 책 하나를 책꽂이에 살짝 꽂아 놓았는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더니 하루 종일 병정개미 1114호만 읽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재미있니? 내 책을 친구가 읽는데 내가 안 읽으면 안 돼지." 하는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고 끝까지 읽었다.

그런데 안 읽으면 후회 할 뻔했다. 내가 가끔 걱정하는 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토요 휴업 일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나와 함께 포천이나 그 주변 지역을 여기 저기 구경하러 다니신다. 어느 날 "우리 한탄강 줄기에 있다는 재인 폭포에 다녀올까?" 하시더니 재인 폭포를 찾아 집을 나섰다. 가다 보니 길가에 빨간 글씨가 쓰여 있는 프렌카드 같은 것이 여기저기 걸려있었다. 차를 세우신 아버지께서 읽어보시더니 "이 지역에 뱀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 한다구나." 하셨다. "그런데 왜 뱀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재인 폭포에 도착 해 보니 폭포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가운데 떨어져 내리는

폭포와 그 옆에 또 흘러내리는 폭포, 그리고 주위의 멋진 나무들과 바위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노는 다람쥐들과 아래쪽에 흘러가는 한탄강 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천천히 우리 집에 놀러오면 여기 가자고 해야지.' 하고 생각하며 재인 폭포를 나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근처의 가게에 들러서 "여기에 뱀이 정말 들어서나요?"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내가 본 한탄강과 재인폭포, 근처의 논과 밭, 집과 산까지 모두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이었다.

"야, 그래서 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구나. 이 아름다운 환경이 물 속에 사라진다니, 반대 할 만도 하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 내용이 머리에 떠올라 또 걱정스러웠다. 뱀 건설을 하면서 물 속에 잠긴 식물들이 썩어 가면서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그 메탄가스는 소의 트립보다 훨씬 많이 지구를 온난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아름다운 나무와, 산에 있는 식물들이 물 속에 잠겨서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를 풀어 낸다고 생각하니 뱀 건설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수 없이 많았다.

그 때는 병정개미 1114호 같은 작은 개미 목숨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뱀이 건설되면, 왕국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을 작은 곤충들은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이유도 모르고 죽어갈 것은 뻔하다.

이 책을 읽고 엄마께 "엄마, 불개미 떼가 왕개미 땅을 빼앗으려고 쳐들어 왔는데요, 그때 뱀에 물이 차기 시작해서 불개미 왕국도 왕개미 왕국도 모두 물에 잠겨 개미들이 똥 땅 죽고 병정개미 1114호만 나뉘었 덕분에 살아서 떠내려갔네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

께서는 "지구는 자꾸 더워지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천재지변은 일어나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기려고 욕심부리는 모습이 꼭 뱀에서 죽은 불개미들을 닮았구나." 라고 하셨다.

2년 정도 세상을 산 병정개미 1호가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개미의 생명은 길지 않은 것 같다. 용감하지만 생각이 짧은 짧은 병정개미 1114호에 비해서 병정개미 1호는 생각이 깊고 지혜로웠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래서 병정개미 1호가 생각한대로 지금 살고 있던 왕국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옮겨갔더라면 다 함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여 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지혜로운 병정개미 1호가 불개미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왕국은 물에 잠겨, 끝없는 숲의 모든 개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살아남은 병정개미 1114호가 다시 왕국을 이루어 살게 되면 병정개미 1호에게 배웠던 지혜와 경험으로 왕국을 잘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잔소리쟁이라고 싫어 할 것이 아니라, 병정개미 1호처럼 세상을 나보다 오래 사신 분으로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잘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에 부모님께 흘러서 재인폭포에 다시 다녀왔다.

뱀이 들어선다는 재인 폭포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야생 동물이나 곤충들에게 뱀이 들어설 것이니 빨리 이사 가라고 얘기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인폭포 입구에서 서부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인 아저씨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다.

재인폭포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개미들이야, 다람쥐들이야 이곳에 뱀이 들어선대. 빨리 이사 가." 하고 소리라도 외치고 오면 작은 생명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할 줄 알았는데, 이사가라는 얘기도 해 줄 수 없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 자유기고

## 야호! 아도니스 골프장 다녀왔어요.

우리학교는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삼정 초등학교입니다. 2005년 7월에 한태원 교장선생님의 노력으로 골프 학습장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후 우리 학교 전교생들은 일주일에 세 번 씩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골프 학습을 받아 왔습니다. 훌륭한 프로 선생님을 모시고 전교생 모두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열심히 운동을 해 왔습니다.

비록 시골에 있는 학교이지만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시설을 갖춘 우리 학교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촌들은 저를 항상 부러워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골프장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19일과 20일 12일방과후 4명씩 3개조로 나누어 12일이 다녀왔습니다.

넓고 광활한 예쁜 잔디밭을 보며 와! 멋지다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하며 모두 다 소리 지르며 흥분을 했습니다.

말모란 들던 그린(Green)을 보고 갈탄과 함께 뛰고 뒹굴며 모두 다 신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연습해왔던 실력들을 서로 겨루었습니다. 마치 내가 프로 선수가 된 것 같이 어깨가 으스스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타 한타를 공을 치며 나아가는 우리 조 모두는 즐거웠습니다. 넓은 잔디를 걸치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 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을 쳤습니다.

라운딩, 아이언, 어프로치 등 등 말로만 들던 것들을 이해 할 수가 있었습니다. 6학년 박형우 형의 멋진 스윙과 멀리 나가는 장타가 부러웠으며 5학년의 이 소리 형은 공이 멀리 나가는 장타의 힘과 힘을 함께 정확히 샷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장래의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어서 우리 삼정초등학교와 우리나라를 빛내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아도니스 골프장에서 한 달에 두 번 2, 4주 월요일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3개팀씩 돌아 가면서 무료로 골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신나는 골프여행 잘 다녀왔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운동해서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호  
학생부예기자(포천초 4년)

### 과주 영어마을을 다녀와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경기도 과주에 있는 영어마을을 다녀왔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학교나, 유치원에서 단체로 온 학생들 빼고는 별로 없어, 한적해 보였다.

하지만 건물이 많은 데에 비하여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썰렁해 보였다. 그런 부분에서는 보통 민간인 마을이나, 영어마을이나 차이점을 느낄 수는 없었다.

과주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원어민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많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막상 영어마을을 가보게 되니,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연극관람이나, 로봇 하우스 프로그램에 몰려 산만해 보였다.

연극에서는 배우 3명이 출연하여, 카우보이와, 가우걸이 몬스터를 잡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시나리오가 그다지 재미있진 않아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관객들과 함께 한다는 점이 그나마 관객들의 흥을 돋구어 주었다.

또한 로봇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1~2학년들의 시각에만 맞춘 것 같아서, 조금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 음식점 주인이 담배를 판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되어, 불쾌하기도 하였다.

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참고하여 반영한다면, 세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이다.

조은혜  
학생부예기자(포천초 4년)

### 광릉분재예술공원을 다녀와서...

우리는 기말고사도 끝나고 해서 그 동안 시험공부 하느라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해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는 분재예술공원을 다녀왔다. 그래서 우리 금오중학교 친구들과 함께 눈썰매 타러 눈썰매장에 갔는데 우리는 교통을 해결하지 못하여 한참동안 걸었다. 많은 힘은 들었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에도 썰매장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을까 하면서 그 순간에도 걱정을 하였는데 직접 가서 보니 힘들게 걸어온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정말 큰 규모의 눈 썰매장은 하얀색상처럼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어 즐거운 눈 썰매를 탈 수 있었고 눈 썰매를 타며 우리들은 환호성과 썰매에 밀린 눈보라와 함께 스트레스를 저 하를 높여 놓기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게 멀리 날려 버렸다.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날려보냈던지 눈 썰매를 타고 난 후 우리들은 너무 배고고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바로 옆에 있던 비닐 하우스 매점으로 향하여 우리들의 배고픔을 잠재워 줄 음식들을 찾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떡볶이, 어묵, 컵라면 등등의 많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은 탓 일까? 그 후로는 도저히 배가 불렀고 몸이 무거워 눈썰매를 타러 올라갈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 조카 공원으로 산책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동물들의 얼굴표정이 마치 실제 동물의 표정처럼 생생하게 조각되어있는 것을 보니 동물원에 온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조각공원의 동물원을 둘러보다 딱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니!! 요번에 새 단장을 했다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올라가서 영어마을을 구경하였는데 각 건물의 이름들이 있었다. 제일 큰 대장 건물은 library, 그 다음엔 작았던 썰매장건물들은 hospital, post office 등이 있었다. 정말 내부 시설도 잘해 놨었다. 멀리 안가도 우리

의 근처에도 영어마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다. 나는 친구들과의 기념촬영을 하고 분재공원에서의 재미있었던 하루가 지나고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분재공원을 다녀오던 날은 저녁도 내 마음처럼 밝았다. 나는 광릉분재예술공원을 다녀온 후 우리 포천도 어느 관광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볼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 곳! 포천에 대한 자부심이 내 가슴 속에 한 가득 차치하게 되었다.

박하은  
학생부예기자(포천초 4년)

###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 주민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내가 그때 주민들이라면 참 살 길이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니까 막막할 것 같다.

서해안 그 푸른 바다에 부은 기름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약 1만5000t 이라고 한다. 정말 도와 드리고 싶다.

일본에서 이렇게 슬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벌써 겪은 것이다.

일본은 많은 자원봉사단들이 손을 모아서 6달 동안 한 끝에 바다를 뒤덮은 기름을 제거했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서해안 바다를 뒤덮은 기름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보다는 서해안의 주민 분들이 정말 더 충격 받았을 것이다. 유조선이 부선과 부딪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고 한다.

배의 왼쪽편 기름통이 3구멍이나 뚫려서 생긴 사고라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 시프린스 호가 기름 유출한 것 보다 두배가 더 높다고 한다.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었는데